

[첨부 1]

산림청의 건설업역 침해방지 촉구 탄원서

금년 1월 28일 산림청이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수목병해충 방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시행할 수 있게 조치(행정지도)한 이후, 30년 동안 수행해 오던 병해충 방제의 수목유지관리 공사가 모두 산림법인으로 단독 발주됨으로써,

조경식재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정당한 건설업 면허의 자격을 갖추고 수십년 동안 수행해 오던 업역이 붕괴되고 생존권이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산림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업계의 고유 업역을 침해하지 말고 산림청이 각 지자체에 조치한 행정지도를 즉각 취소(철회)하고 조경식재 전문건설업의 업역을 존중하여 지켜주시기를 탄원드립니다.

이러한 전문건설업계의 정당한 요구를 산림청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국 4만여 회원사에 이러한 피해 사실을 알려 대규모 집회시위로 국민들에게 산림청의 부당행위를 호소하고 각 정부부처에 이를 시정하도록 강력 촉구할 것이며 500만 건설가족의 생존권을 지켜낼 것임을 천명합니다.

2016. 6. .

상 호 :

대 표 자 :

(날인 또는 서명)

산 림 청 장 귀 하